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여러분,

제28대 행·재정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최창규입니다. 오늘날 학회의 명성과 업적을 이룩해 오신 선배님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저는 학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학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2년 가입 후 학회의 뜻에 따라 학회와 회원분께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수의 위원회에서 간사 및 부위원장을 경험하고, 학회의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기획위원장, 학술위원장, 도시정보지 편집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연구단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역사를 빛나게 할 데이터 구축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홈페이지 전산화', '라운드 테이블 보급', '세미나 시리즈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이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회의 유구한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고, 회원분과 함께 이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차기 학회장, 학술부회장의 비전과 정책목표에 맞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힘을 모아, 첫날부터 제대로 학회와 회원분의 동반성장을 책임지고 이루겠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발전학회'로 자리 잡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회와 회원분의 미래발전은 반백 년 이상 쌓아온 학회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8년 전 논문, 도시정보지,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모두 전산화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완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회의 과거와 현재 역사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역사적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회원분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2. 적극적 협업을 통해 균형 잡힌 '상생학회'로 도약하겠습니다

국토·도시계획 분야는 전문성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실적 종합학문입니다. 학술과 실무는 서로 그 가치와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존재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엔지니어링, 부동산, 정보통신 분야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학회 및 대학에서 참여한 '학술'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협회, 도시와 부동산에 관련된 전 분야의 협업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균형 잡힌 상생학회로 도약을 위해 지역에서 발현되는 풀뿌리 정책 요구도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3. 국경과 경쟁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국제학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발전과 그 역사적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따라서 학회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학생, 학자, 공무원의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개별 대응의 한계로 획기적인 국제 연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회가 전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해외 학회 및 대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지가 SCOPUS 저널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선진적인 연구들이 해외연구자와 계획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 다양성을 존중하고, 작은 목소리도 함께 하는 '참여학회'로 발전하겠습니다

창의적 연구, 획기적 방안은 다양한 구성원의 편안한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학회가 격변하는 시대의 부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신진연구자, 여성학자, 해외 연구자 등 다양한 회원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포용의 태도로 혁신적인 인재를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학회의 역사가 이룩해 온 지혜와 해안에 창의와 혁신을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5. 즐겁고 활력 넘치는 소통을 통해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는 행복한 교류, 즐거운 만남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 연구자, 계획가, 업계의 분들이 모여 정보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연구, 교육에 대해 논의하며, 친목을 다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회와 회원분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성장의 힘을 믿고, 참여와 소통이 넘쳐나는 학회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열정, 봉사, 희생이라는 수많은 선배님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숭고한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써 내려갈 새 천년의역사에 제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회의 역사와 함께하며 촘촘하게 제대로 준비해 온 제가,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